

보도자료

2021. 9. 30.



상해한국학교

SHANGHAI KOREAN SCHOOL

창의체험부 ☎ 6493-9530

자료문의: 창의체험부 ☎ 6493-9530

부장: 창의체험부장 조민영

담당: 한지희

제목 : 상해한국학교 2021 제6회 세계시민 모의유엔 (SKOSMUN) 개최

□ 지난 2021년 9월 25일 상해한국학교(교장 전병석)에서 ‘2021학년도 제6회 세계시민 모의유엔 (SKOSMUN)’ 행사를 진행했다. 모의유엔은 상해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 학생들이 모여 실제 유엔 회의 형식을 따라 토론을 진행해보며 여러 나라의 입장과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활동이다. 모의유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 토론 및 회화 능력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대표를 맡은 나라의 역사, 경제, 정치, 문화를 알아보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배경 지식도 갖추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른 학교의 학생은 참가할 수 없었지만, 98명의 상해한국학교 학생들이 WHO, UNESCO, UNODC, DISEC의 총 네 개 위원회로 나뉘어 각 의장단의 지휘아래 성공적인 모의유엔 행사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별 의장단 및 의제>

위원회	의장단	의제
WHO	11학년 이훈, 11학년 하수민	Establishing Preparedness Protocols for Epidemics and Pandemics
UNESCO	11학년 이민영, 11학년 김현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Empower Vulnerable Societies Addressing Gender Disparities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UNODC	10학년 남우진, 11학년 황정환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ization of Marijuana and Drug Related Crime
DISEC	11학년 한주영, 11학년 이수연	National Sovereignty and Asymmetric Warfare; Nuclear Weapons and Geopolitics in South Asia.

□ 모의유엔을 위해 각 위원회는 여름 방학부터 의장단의 주도 하에 세 차례 이상의 온라인 워크숍과 한 차례 오프라인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을 통해 회의의 절차, 형식, 용어 등을 익힌 후, 한 달에 걸쳐 각 나라의 입장에서 해당 의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영어로 작성하며 본 회의를 준비하였다. 9월 22일(수)에 상해한국학교에서 있었던 최종 오프라인 워크숍에서는 각 대표들이 작성한 실행 방안들을 의장단과 미리 협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더욱 수준 높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9월 25일 본 회의 당일, 각 위원회는 팬데믹, 양성평등, 마약, 그리고 핵무기 관련 의제에 대해 열띤 회의를 진행했다. 유엔 회의 형식을 따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과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의장단의 매끄러운 진행과 배려로 각 국 대사들은 모두 여러 차례 발언 기회를 가지며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총 6시간 이상의 회의 시간 동안 각 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영어로 결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이번 모의유엔을 총괄한 11학년 원동준 학생과 김현민 학생은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며 각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기자 11학년 이민영, 이훈



2021 SKOSMUN 개회식



2021 SKOSMUN 참가자 전원 단체사진



2021 SKOSMUN 위원회별 회의



2021 SKOSMUN 워크숍 사진

2021. 09. 30.
상해 한국 학교장